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지난 3년의 평가와 향후 10년 기획

2024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포럼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지난 3년의 평가와 향후 10년 기획



2024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포럼

2024. 12. 5.(목) 14:00 /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88)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지난 3년의 평가와 향후 10년 기획



2024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포럼

2024. 12. 5.(목) 14:00 /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88)

2024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포럼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지난 3년간의 평가와 향후 10년 기획



인사말씀



서 흥 식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서흥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2024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3년간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은 복지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권리이자,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의 척도입니다. 우리는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활동이 사회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재단은 지난 몇 년 동안 모두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문화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멀고, 그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나누며, 함께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장애예술인과 함께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포용적 문화예술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5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 서흥식

2024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포럼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지난 3년간의 평가와 향후 10년 기획



축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지사 김태흠입니다.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포럼에 참석해 주신 박기영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장애예술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합니다. 예술을 통해 장애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문화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예술적 가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청남도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난 3년의 평가와 향후 10년 기획'을 주제로 오늘 포럼을 주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장애 예술 지원정책은 예술이 아닌 복지에 좀 더 주목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장애예술인들의 창작과 표현이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도록 효과적으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장애 예술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번 포럼은 그동안의 장애예술 지원정책을 돌아보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이 창작의 자유를 누리고, 사회적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관심이 한국 장애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5
충청남도지사 | 김태흠

정책포럼 안내

구분	시간	내용	
오프닝 공연	13:50~14:10 (20')	국악인 이지원	
개 회 사	14:10~14:15 (5')	서흥식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축 사	14:15~14:20 (5')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김예지 (국회의원)	
1세션	14:20~14:30 (10')	대표 연설	박기영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충남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 의의와 중요성」
2세션	14:30~15:00 (30')	주제발표 I	김형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국내외 장애인(장애예술인)문화예술 정책과 현황」
		주제발표 II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남 장애인예술 지원정책 현재와 미래(성과와 과제)」
3세션	15:00~16:00 (60')	주제토론	좌 장 방귀희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대표)
			전소영 (협성대학교 에이블아트학과 교수)
			최선영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온라인 기획위원)
			홍혜전 (한국장애학회 문화예술분과위원회 위원)
			김태우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광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남도발달지원센터장)
4세션	16:00~16:25 (2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폐 회	16:25~16:30 (5')	기념촬영 및 폐회	



2024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포럼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지난 3년간의 평가와 향후 10년 기획

제 1세션

대표 연설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 의의와 중요성	10
	박기영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제 2세션

주제 발표 I	국내외 장애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정책과 현황	16
	김형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주제 발표 II	충남 장애예술 지원정책 현재와 미래(성과와 과제)	32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 3세션

주제 토론	좌 장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58
	토론자 전소영 (협성대학교 에이블아트학과 교수)	
	토론자 최선영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온라인 기획위원)	
	토론자 홍혜전 (한국장애학회 문화예술분과위원회 위원)	
	토론자 김태우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토론자 김광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남도발달지원센터장)	

제 4세션

종합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86
------	-------------	----

2024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포럼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지난 3년간의 평가와 향후 10년 기획



제 1세션

대표 연설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 의의와 중요성

박기영 |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박 기 영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現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前 제8대 공주시의회 부의장
前 제6,7,8대 공주시의회의원(3선)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前 공주고등학교 공주동창회장
前 공주청년회의소(JCI) 회장
前 로타리3680지구 지역대표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의의와 중요성

박 기 영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여러분, 그리고 충남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정책에 따뜻한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뵙고 인사나눌 수 있어 영광이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예술인의 문화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고 계신 김예지 의원님,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에 큰 역할을 해오신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멋진 포럼을 준비해주신 서흥식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 주제가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지난 3년의 평가와 향후 10년의 기획'입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정책 논의가 활발한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6월,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9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2026년까지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술인복지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부분적인 지원이 가능했 하지만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여기서 한 발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장애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의미있는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1년에는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도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중요한 발판입니다.

법 제정과 함께 '조례 입법'은 중요한 과정이며, 단순한 제도적 장치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조례와 규칙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세부적인 지원내용을 명문화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요구와 특성을 세심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며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욱 큰 의미는 우리 사회 속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는 결코 창작의 장벽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성의 원천입니다. 조례 제정으로 장애예술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평등하게 예술을 향유하는 환경이 마련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예술적 풍요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역활동을 하며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여러분이 오랫동안 힘겹게 활동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정규적·전문적인 예술을 교육받는 기회가 적거나 장애 교육 전문가의 부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예술가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중 첫 입법활동으로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장애예술인 관련 시책은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명백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가 되었고, 지속적인 강제력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책포럼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과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없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장애가 있어도 예술에 대한 열정과 끼가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가까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장애인 예술의 기반이 탄탄해지고 예술의 위상이 높아지기까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장애예술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닿는 방안이 도출되어 오늘 토론의 자리가 알찬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애 예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만드는 긴 여정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술은 사회를 연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화적 토양은 비옥해지고, 새로운 예술적 흐름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K-컬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놀라울 정도로 뜨겁습니다. K-POP과 한국 드라마, 영화에 열광할 뿐만 아니라 K-문학, 클래식, 게임, 미술 등 우리 문화 전반에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은 전 세계에서 갈채를 받고 박수받는 케이컬처의 또 다른 추동력입니다.

저와 충남도의회는 장애예술인들의 자부심을 의정활동을 통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분야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향후 10년은 장애예술인들이 꽃피우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MEMO

2024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포럼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지난 3년간의 평가와 향후 10년 기획



제 2세션

주제발표 I

국내외 장애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정책과 현황

김형희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김 형 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주요 경력

장애예술 기획자 / 화가 / 임상미술치료사 / 강연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 장애예방 교육 / 동료상담 강사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사 / 인사위원 / 여성 정책위원

(사)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 재활이사

경기도문화자치위원회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참여혁신단 자문위원



국내외 장애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정책과 현황

김 형 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I장. 국내 장애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정책과 현황

1.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및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 설립되었으며, 이는「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문화예술진흥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있는 이음센터는 5층(대학로) 공연장, 전시장, 연습실,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23년 10월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 이 개관을 하였고 올해 표준전시장인 ‘모두미술공간’ 이 12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음. 이 두 공간은 높은 수준의 창작 및 향유 접근성을 갖춘 공간이자 문화적 다양성을 지원하는 열린 공간으로써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 모두를 위한 창작거점 공간임.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누구도 차별과 배재없는 예술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와 예술적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시스템 및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미션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비전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의적 발산과 성장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설정하고 ‘창의·변화·협력·상생·전문·소통’이라는 핵심가치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중 장기 전략을 수립함.

○ 예산현황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규모 대폭 확대됨.

- 국고 및 체육기금 지원예산이 ‘19년 14,030 백만원 → ‘24년 32,112백만원 (4,743 백만원, 229% 증가)

○ 장애예술인 현황

장애예술인 현황은「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등록된 전문장애 예술인 7,095명, 장애예술 단체 223개, 예술장르 14분야 (미술, 음악, 문학,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방송, 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15개 법적 장애유형의 장애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음.

2. 법과 정책

○ 과거 ‘장애인 예술’ 활동을 위한 법과 정책

우리나라는 1980년대 장애인 복지 발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1998년 ‘제1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신장시키고 사회통합의 단계로 진입, 이어 2003년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 실현을 모토로 ‘제2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 추진되었으나, 장애인예술은 사회적 인식 자체가 미비하여 독립적인 지원정책이 불가피하여 복지정책과 엮어서 논의됨.

그 후 2005년 장애인 예술정책 생태계가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법과 제도, 체계, 단체, 연구, 인프라, 지원 등 많은 발전 양상을 보이게 되었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장애인 체육(예술 포함)에 관한 정부 업무가 복지부에서 문체부로 이관되면서 체계적인 장애인 예술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장애인 예술과 관련한 정책들이 등장하였고 본격적인 장애인예술 지원사업은 2008년 국고와 2010년 복권기금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국고 12억 규모로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 등이 있으며 복권기금에 장애인(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등이 있었음.

○ 현재 ‘장애예술’ 활동을 위한 법과 정책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작품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됨.
[법률 제17415호, 2020. 6. 9, 제정] [시행 2020. 12. 10]

법안에는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작품발표 기회 확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인식개선 운동 추진, 장애예술인 고용사업주 비용 지원, 공연장 등 문화시설 개선, 장애 예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장애예술인 지원 3법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장애예술진흥을 위해 발의한 3건의 개정 법률안이 2022년 10월 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했으며 앞으로 장애예술진흥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통과한 법률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일부 개정안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정종은 외(2013)의 「장애예술 생태계 지원방안 연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 장애예술인지원법

(주요내용)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를 추가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되,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공연법」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장애인·장애예술인의 성장배경

장애예술인 성장 배경을 보면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 장애(사고, 질병 등)로 예술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80%이상이며, 예술 치료나 취미로 시작하여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다양한 (병원, 복지관, IL센터, 장애예술단체 등) 환경에서 예술교육 및 예술 활동을 하게 됨. 최근에는 장애예술가, 비영리/풀뿌리단체, 동우회 등 각 지역 마다 소모임의 그룹들이 형성되면서 예술 활동을 통해 소통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세상으로 나오고 있음

장애인 예술은 자기표현과 참여의 예술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예술성, 장애인의 자기완성의 예술성 등, 전통적인 미학적 측면의 예술성에서 벗어나 장애인 예술만이 줄 수 있는 감동적인 측면에서의 예술성 등 복합적으로 결합된 가치를 포함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 예술은 인간의 ‘다름’을 경험하게 하는 특수성과 고유성은 예술표현의 하나의 양식으로 볼 수 있으며, 장애인 예술의 가치는 미학적 성취라는 전통적인 예술의 가치 측면보다는 장애인 예술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의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장애인은 사회적 환경(편의시설), 경험(교육, 체험, 기타), 인식부족 등으로 비장애인 보다 사회문화적 기회가 적어 모든 활동에서 뒤처지며, 국가는 이러한 출발지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가의 주요한 책무의 하나로 인식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해오고 있음.

장애예술 Disability Arts 은 장애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이 협업하여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수월성을 보여준다는데 주목하며, 장애예술을 통해 장애에 대한 기존의 가치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영향력을 제시한다는 특징을 보임. 또한 문화다양성과 평등의 기조 아래 ‘장애예술에 접근할 경우 장애예술은 하나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어짐. 즉 장애예술(disability arts)은 “장애인에 의해 ‘장애’라는 경험이 반영되어 ‘장애요소’를 매개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애에 대한 표현을 통해 기존의 비장애 중심의 예술창작 스펙트럼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

최근 사회적 관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장애예술'은 장애유형별 특수성, 고유성, 장애감수성,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고려한 지원정책 및 관리 감독 부족으로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예술 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효과적 수행 및 장애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새로운 시각의 현장 중심의 장애인 예술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3. 지원사업 4대 전략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는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지원사업 4대 전략 아래 핵심 사업을 설계하였으며, 1) 창작기반 (공모지원-동우회, 예비예술인, 국제교류 레지던시 등), 2) 역량강화(창작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지원-전문학교교육, 장애예술인 강사양성 파견, 창작자, 매개자, 접근성 프로그램 등), 3) 발표·향유기회 확대(모두예술극장 운영(대관/기획 공연), 표준전시장 운영(대관/기획전시),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 지역거점 지원(접근성 가이드북 보급/교육/접근성 매니저 교육), 4) 자립기반(유통플랫폼 구축-창작물 우선구매/아트마켓), 맞춤형 일자리 지원(예술단창단, 훈련과정개발, 표준작업장 지원) 등 지원체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4. 지역 지원사업

○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2023.12.19.)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시행(2022.9.8.)에 따른 문화시설 및 정보 접근성 강화.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문광연)에 공공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관람석, 열람석, 무대 42.4%, 점자, 촉지도, 음성안내, 장비 등 53.2%로 저조하고, 문화시설 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장애인 향유 접근성 확대를 통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반 및 체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전국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 및 문화시설에 공간, 콘텐츠, 정보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장애인 관객개발, 문화예술 향유 환경조성,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속적인 접근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지원,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 현장 적용 토대를 마련하고자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함.

본 사업은 '22년 시작되어 '24년 올해 3년차로「'22년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연구내용을 기반으로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콘텐츠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콘텐츠 제작 및 접근성 서비스 지원 (음성해설, 수어통역, 자막, 접근성 매니저 운영 등) 공공 문화시설 대상 무장애 콘텐츠 제작 지원하며, '22년 전국 4개 권역 9개소, '23년 전국 5개 권역, 11개소 '24년 전국 5개 권역, 12개소에 공연, 전시, 영화, 축제 등 장애인 문화향유 접근성을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콘텐츠 향유 접근성 개선 및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환경을 조성함.

'23년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 북 4종 (총론, 공연장, 전시장, 예술교육) 연구/개발 발간함. 이는 전국 국·공립 문화시설 기관 운영 요소 및 장애 유형 분류에 따른 접근성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접근성 가이드 활용 사례 공유,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접근성 관련 전문성 습득, 역량 증진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통한 접근성 가이드 활용 방법 제시, 홍보 및



확산하였으며, 국내 문화시설 접근성 관련 사업운영 가이드 수립 및 기초자료로 충분함

가이드 배포 및 접근성 사업 확대로 전문인력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4년 접근성 매니저 직무 분석 및 양성 교육과정 연구 개발 추진함. 이는 현재 국내 접근성 관련 전문 인력 운영 및 현황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 진행, 국내외 접근성 매니저 운영사례 분석, 인력양성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연구를 기초로 추후 접근성 전문 인력 확대방안 모색(수요조사, 파견)함.

○ 지역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2.10.) 시행에 따라 제9조1)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제12조2)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를 통해 장애인 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 장애예술에 대한 기반 마련과 사업지원 필요성 대두됨.

지역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내 장애예술인의 창작권, 향유권 확대를 위한 장애예술 거점 공간을 확보해 지역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지역 스스로 장애예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다년간 단계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지역 주체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열악한 지역 장애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며 지자체 및 지역 사업수행기관(문화재단 등)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지역 장애예술 발전 계획 수립 및 거점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본 사업은 '18년~'24년(7년)째 추진하고 있으며, 17개 광역 지자체 대상 공모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성과, 사업수행 의지 및 진정성, 지방비 매칭 여부, 지역거점 공간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 및 지원금액(최소 1억원~최대 4억원 지원)을 결정하고 평가에 따라 3~5년 연속 지원함.

사업 추진내용은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된 거점 공간 발굴 및 환경을 조성하고 거점 공간 내 특성화 사업운영 및 장애예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예술 모델을 마련하며, 장애예술 주체 발굴, 대표 단체 육성,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컨설팅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지역거점 창작 공간 마련 및 운영, 지역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교육, 창작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추진함.

지역거점 창작공간 마련 및 운영 사업은 '18년~'23년까지 지역거점 창작 공간 10개소(누적) 지원하였으며, (부산) 장애·비장애 예술인 창작 공간「온그루」및「두구」2개소 운영, 장애예술인 육성, 장애·비장애 예술가 교류·협업,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지원, 장애예술 페스티벌 진행, (광주) 장애예술인 창작 공간「보듬」운영 및 지역 장애예술인 활동 단계별 예술프로그램 운영, 장애예술인 발굴 및 활동지원, (강원) 장애예술인 특화 레지던시 공간운영 및 입주작가 공동 작업 진행, (충남) 지역 내 거점공간 (천안, 공주)활용 및 전문장애예술인 육성프로그램 진행, (대구) 장애아동, 발달·청각장애인 대상 맞춤형 창작·교육 프로그램 추진, 수어 도슨트 양성 및 파견지원 프로젝트, 청각장애인 가족 문화향유 지원 프로그램 진행, (제주) 지역 장애예술 현황 및 문화예술 공간 실태조사, 창작활동 분석 등 연구사업 추진, 공연예술·시각예술·터치투어 정책 실험 진행, (충북)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과정 진행 및 자료집 제작, 예술매개자 관련 온라인 포럼 개최.

5. 장애예술인문화예술 활동 지역별 지원제도 조사 및 표준조례안 연구²⁾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역에서도 기존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몇몇 지자체의 경우, 1)기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조례를 사용하거나 2)기존 조례를 분리하여 별도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용하거나 3)기존 조례에 "장애예술인~"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됨(서울, 부산, 대구 중구, 광주 서구, 전주시, 제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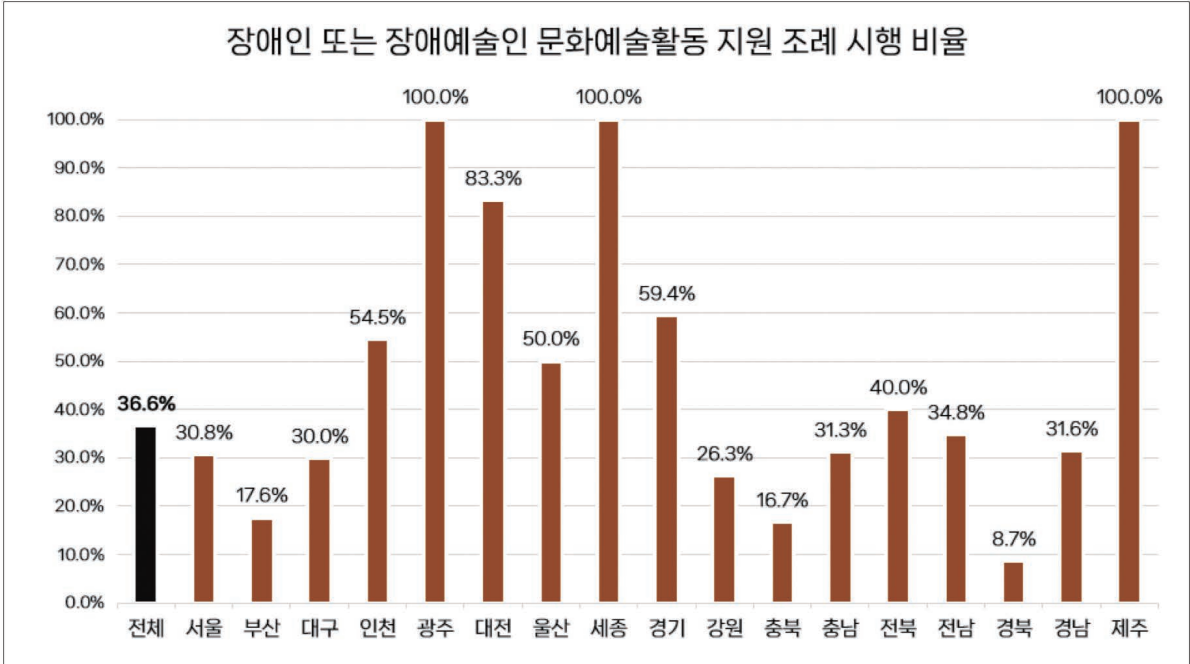
2) 장애예술인문화예술 활동 지역별 지원제도 조사 및 표준조례안 연구, 2024 한국장애인문화예술, 3) 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

이에「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존 조례의 내용을 검토하고, 최근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장애예술인 정기적 공연 및 전시 의무화, 장애 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별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등을 필수 조문 내용으로 넣어 향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시 입안에 필요한 사항과 조문 내용을 통합 정리하여 효과적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표준조례안을 제시함.

○ 자치단체별 조례 시행 현황 (2024.9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현황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장애인 또는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중 최소 1개 이상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총 89개(36.6%)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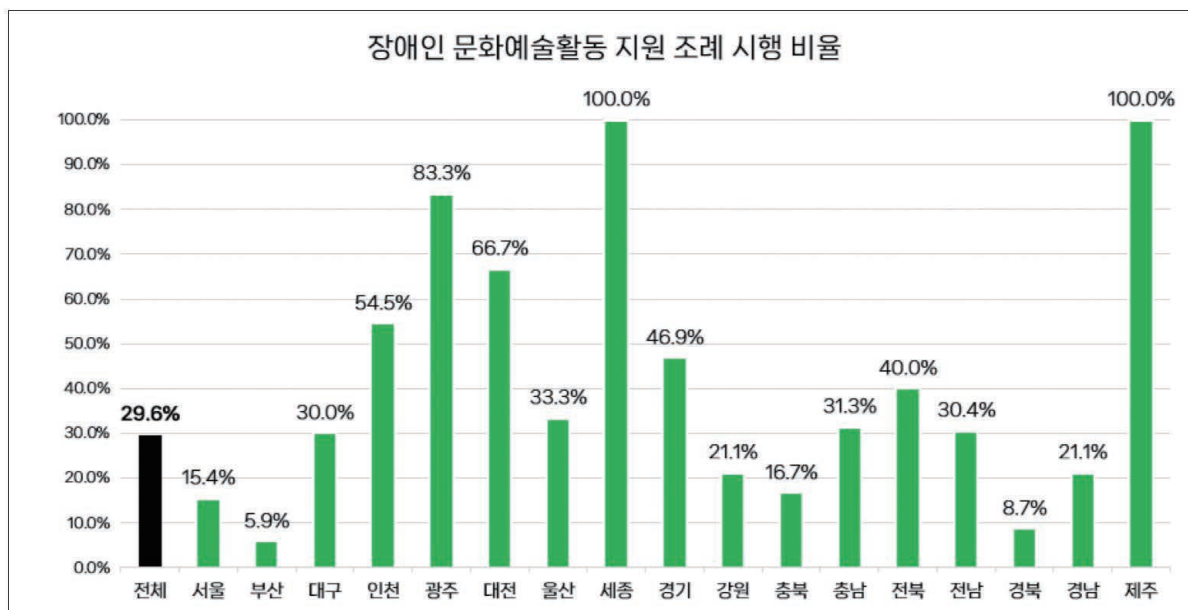
지자체별 장애인 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시행 비율(광역 단위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조례 시행은 총 72개(29.6%)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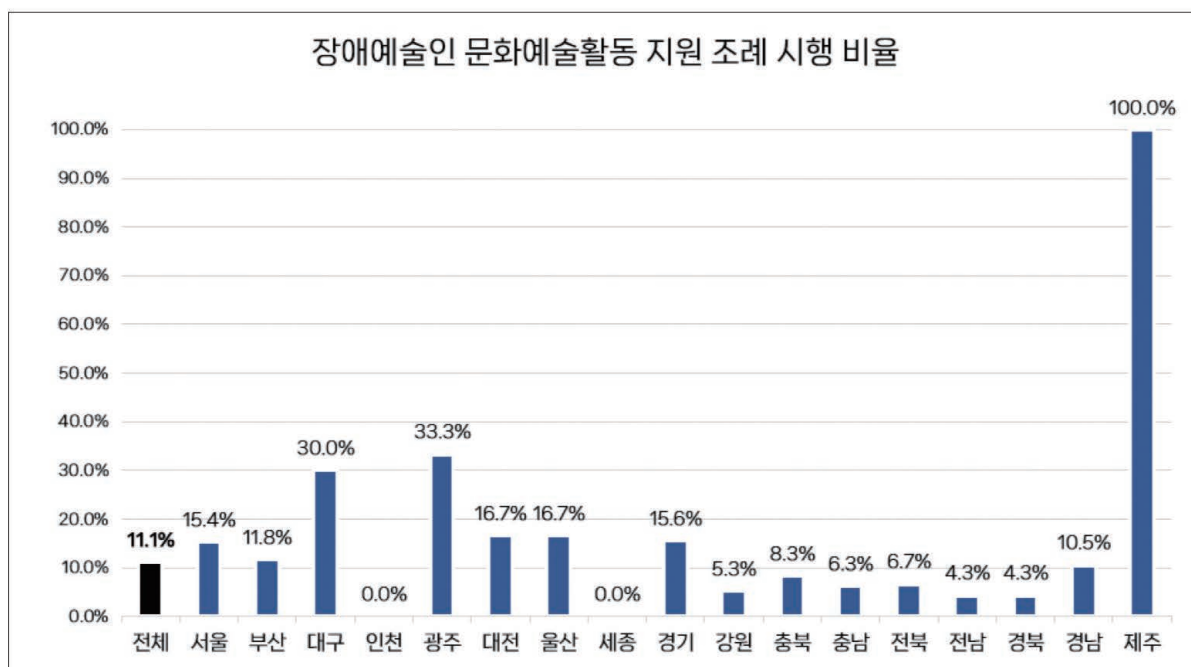


지자체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시행 비율(광역 단위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조례 시행은 총 27개(11.1%)로 파악됨.

지자체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시행 비율(광역 단위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조례 시행은 총 72개(29.6%)로 파악됨

○ 광역자치단체 지원예산 현황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예산 2024년 당초예산 기준 총 9,958백만원이 편성됨 (표 참고)
- 자치단체 당 평균 586백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며, 경기도(1,895백만원)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예산이 적은 자치단체는 충청북도 (171백만원)로 나타남.

2024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예산 현황(단위: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예산	966	822	356	715	790	467	573	311	1,895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예산	304	171	412	214	541	165	229	1,027	9,958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조례 시행은 총 72개(29.6%)로 파악됨

장애인 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예산의 특성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등 문화분야 소관부서에서 예산 편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과목은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307-02), “자치단체 등 이전-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308-13), “출연금-출연금”(306-01) 등으로 편성하고 있음.

○ 충청남도 예산 편성 현황

충청남도의 예산은 지역문화 활성화와 장애인복지증진 차원(이상 “정책”)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예산 중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이전되는 60백만원의 예산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내역사업)으로 충남문화관광 재단에서는 “장애예술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과 장애예술 가치확산, 장애예술 인식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음.

- 지역문화 활성화(정책)의 나머지 예산은 예산과목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로 이전 되는 금액으로 추정됨.

4) 예산과목은 출연금으로 파악됨



충청남도 2024년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예산(단위: 천원)

정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	예산액
지역문화활성화	지역예술 역량 강화	충남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역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60,000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18,000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충청남도 장애인 합창대회	20,000
	소계			98,000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단체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미술작품 전시회 지원사업	17,000
	소계			17,000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충남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충청남도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283,240
			충청남도점자도서관 독서문화 진흥사업	14,100
	소계			297,340
계				412,340

출처 : 충청남도 2024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문화체육관광국/복지보건국/사업소)

II 장. 국외 장애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현황

1. 포럼 <국제장애예술올림피아드>

2024년 9월 프랑스 파리 패럴림픽을 기념하여 전 세계 발달장애 화가들의 전시회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됨.

부대행사인 포럼<국제장애예술올림피아드>는 국제적으로 장애인과 예술의 흐름을 인식하고 전시에 참여하는 각국의 대표(대한민국, 프랑스,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장애인, 인권, 예술 문화의 전망과 성장을 논의하고 협력하여 각국의 장애예술인들의 생태계적 문제점과 발전 및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지속가능한 문화 예술적 교류를 가짐.

앞으로 각국의 장애예술인들의 국제적 예술 활동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 프로젝트를 기획·협력하여 장애예술인들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공유하여 누구도 차별과 배제 없는 예술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둠.

2. 각 나라별 장애예술단체

○ **프랑스 : 국립창작적응 센터 Centre National de Création Adaptée (CNCA)** | <https://cnca-morlaix.fr/>

프랑스 국립센터로써 공연자의 창작과 교육 지원, 예술적 실천 지원, 취약계층과

모든 청중의 접근성 확장하는 기관으로 대규모 문화시설 사업 처음으로 정신장애인 통역사가 참여하고 있음.

○ **미국 : 케네디센터 Kennedy Center** | <https://www.kennedy-center.org/>

워싱턴 D.C.에 위치한 케네디 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통해 장애 예술을 촉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 1974년 Jean Kennedy Smith에 의해 설립된 예술과 장애에 관한 국제 조직인 VSA임. 원래 “Very Special Arts”의 약자인 VSA는 현재 케네디 센터의 VSA 및 접근성 부서로 운영되고 있음. VSA의 주요 임무는 모든 연령대의 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 배우고,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음.

○ **영국 : 싱크 리더십 Sync Leadership.com** | <https://syncleadership.com/>

Sync Leadership은 영국에 거주하는 두 명의 장애인 리더인 Sarah Pickthall과 Jo Verrent가 2008년에 설립한 청각 장애인 및 장애인 리더십을 탐구하는 장애인 주도 프로그램임. 리더십 이론과 일대일 코칭을 결합한 Sync는 예술, 문화, 유산 및 미디어 분야에서 청각 장애인 리더십을 개발함. 청각 장애인, 장애인, 신경이 다양한 목소리, 경험 및 자연스러운 리더십 기술을 인정하고 개발하는 것은 변화하고 어려운 시대에 특히 중요함.

○ **키르기스스탄 : 발달장애인 체스협회 the Chess 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 <https://ipcachess.org/>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체스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임. 이 협회는 체스 대회를 조직하고 참가자들에게 훈련과 지원을 제공함. 이러한 활동은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체스 커뮤니티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일본 : 에이블아트재팬 Able Art Japan** | <https://www.ableart.org/>

에이블아트재팬은 예술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운영함. 민들레의집과 협력은 (에이블아트재팬의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음) 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임. 1995년 에이블아트 운동(Able Art Movement)을 공동으로 제안하여 예술과 인간성의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싱가포르 : 인에이블 SG ENABLE** | <https://www.sgenable.sg/>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비영리 기관으로, 장애인을 지원하고 포용적 사회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함. 주요 활동으로는 장애인 고용 촉진, 기술 지원, 사회 통합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고 있음. SG Enable은 또한 Enabling Village와 같은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싱가포르 대통령에 의해 제도 및 보조금, 고용에 대한 비즈니스 허브 기관임을 인정받음.

○ **아르헨티나 : 국립예술대학교** | <https://www.masterstudies.kr/institutions/national-university-of-art-institute>

예술 교육과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주요 기관. 1996년에 설립된 UNA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다양한 국립 예술 학교와 음악원을 통합하여 풍부한 예술적, 학문적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UNA는 예술에서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중시하고 있음.

○ **이탈리아 : 패럴림픽 위원회** | Italian Paralympic Committee

(Comitato Italiano Paralimpico. CIP) | <https://www.comitatoparalimpico.it/>

CIP는 장애인 선수들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패럴림픽 및 기타 국제 대회에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참여를 조직하고 관리함. 이 단체는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자립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운영함.

III장. 결론

현시대 '장애'는 단순한 용어가 아니고 하나의 새로운 '문화'이며 그 안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같은 것을 보고 있더라도 전혀 다른 관점과 의식으로 전혀 다른 해석을 보여줌. 이것이 장애예술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고 수월성임.

최근 국내 문화예술 생태계에서 '장애예술, 접근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내 예술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관심과 확대는 새로운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었음.

장애의 결핍이 '예술'과 만나 세상과 소통할 때
'장애예술'이라는 새로운 시각의 또 다른 '예술언어'가 된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속에서 장애예술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보편적인 권리로 작용하고, 모든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소통을 통한 인식개선이 확산되어 '장애예술'이라는 새로운 예술장르의 확장을 통해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작품세계에 몰입하고 그 결과로서 자신의 삶에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될 미래를 기대함.



MEMO

2024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포럼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지난 3년간의 평가와 향후 10년 기획



제 2세션

주제발표 II

충남 장애예술 지원정책
현재와 미래 (성과와 과제)

조현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 경력

現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現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총무이사

現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활동 활성화 방안연구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강좌이용권 도입 기초연구

장애예술인 창작품 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

장애예술인 문화활동 지원기본계획 연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성과와 과제

조현성(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12. 5.

차례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전개
2. 충남 장애인 현황
3.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4. 충남 문화관광재단의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5.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성과
6.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과제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전개

● 장애인정책과 문화예술

- 장애인복지법(1989) 3조에 문화 포함
- 장애인복지법(2001) 2조2항 문화참여권리, 8조1항 문화차별 금지 등이 있었으나 선언적 의미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998년부터 5년 단위 계획 수립
- 1차부터 문화향유, 문화예술교육 등이 포함
-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 포함됨
 -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장애예술활동 지원 강화(장애예술인 지원정책 제도화, 장애예술인/단체 창작물 유통지원, 장애예술인/장애예술계 매개자 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

3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전개

●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6-1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6-1-1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 문화시설 접근성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교육 등 지원 - 문화시설 접근성 실태조사 및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 확대	문화시설 접근성 가이드북(매뉴얼)				
			'23 매뉴얼 제작	'24 배포· 교육	'25 배포· 교육	'26 매뉴얼 개산제작	'27 배포· 교육
6-1-2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도입 및 시범운영, 전국 확산 검토 - 시설 향유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건수(건)				
			'23 57	→ →			'27 75

4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전개

●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6-2 장애인예술활동 지원 강화							
6-2-1	장애인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정책 제도화	• 장애인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지역거점 장애인예술인 표준공간 조성 및 장애인예술단체 운영 지원	• 장애인예술인 창작공간 참여인원 수(명)				
			'23	'24	'25	'26	'27
			300	400	500	600	700
6-2-2	장애인예술인·단체 창작물 유통지원 확대	• 장애인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도입 추진(시행령 개정) • 장애인예술인 창작물 유통지원 플랫폼 개발 및 구축·운영	• 장애인예술작품 유통매개 품목 수(종)				
			'23	'24	'25	'26	'27
			구축	구축	10	20	20
6-2-3	장애인예술인 및 장애인예술 매개자 양성 교육체계 구축	• 문화예술 전문인력 제도 내 매개인력 양성교육 체계 마련 • 장애인예술인 교육 및 심화과정 개설, 장르별 심화교육 지원	• 장애인예술인 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개)				
			'23	→		'27	
			구축	→		16	

5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전개

● 문화예술정책과 장애인

- 노무현 정부 문화정책 비전서 [창의한국](2003)의 8번 과제(사회적 취약 계층의 문화권 신장)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이 포함됨
- 장애인체육정책의 문체부 이관(2005)
- 장애인 문화바우처(문화바우처 시범사업, 2005)
- 문화나눔사업 내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에 장애인복지 시설과 창작지원 포함(2007~2013)
- 함께누리지원사업(2008~),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2018~)
- 문체부 담당부서: 장애인문화체육과 →예술정책과(2013) →장애인예술정책과(2023)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08) 제15조의 2항(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6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전개

● 문화예술정책과 장애인

• 국정과제와 장애인 문화예술

- 박근혜 정부(장애인 예술창작 지원센터 조성 등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예술강사 장애인시설 파견 등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보장)
- 문재인 정부(장애인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장애인 예술공연장 조성)
- 윤석열 정부(장애예술인 활성화: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 /전시장 조성, 국공립 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맞춤형 공모사업, 장애학생 특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 2020년 이후 주요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0)
-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

7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전개

● 문화예술정책과 장애인

• 2020년 이후 주요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 공공기관의 장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제도화(2023)
- 공공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정기적 실시(2023)
- 장애인 문화예술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2023)
- 장애인 문화예술 표준전시장, 모두미술공간(2024)
- 문화예술정책과 장애인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장문원)과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 이음센터 리모델링(2014)
- 장문원 설립(2015)

8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전개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장문원)과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 함께누리사업 주관기관(201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담기관(2021, 2024)
 -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 2024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 68억 원, 2017년(21억 원) 대비 3.3배 증가 (장문원 전체 예산 2024년 321억 원으로 2017년 대비 3.7배 증가)
 -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용
 - 창작제작 기반 조성(동호회 지원, 연구지원, 준비과정 지원)
 - 창작제작 활동(활동지원,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유망단체 지원)
 - 교류활동 지원(국제네트워크, 국제교류지원)
 - 향유활동(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지원)
 - 유통 및 확산(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지원, 장애유형별 특성화 축제 지원)
 - 지역(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9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전개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장문원)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 2018년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됨(2억 원): 3개 지역 시범사업 (부산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 2019년 12억 원(광주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 2022년 11억 원(부산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원주토지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 2024년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3년 지원사업
 - 1년차: 지역현황 파악 및 연구, 다년 운영계획 수립
 - 2년차: 지역특성화, 공동협력 프로그램 개발운영
 - 3년차: 특성화 모델 확립, 거점 거점기관 역할 수행
 - 2021년 연속지원 3년차 종료 후 부산 3억 원, 광주 3억 5천만 원의 지방비 예산 확보

10

2 충남 장애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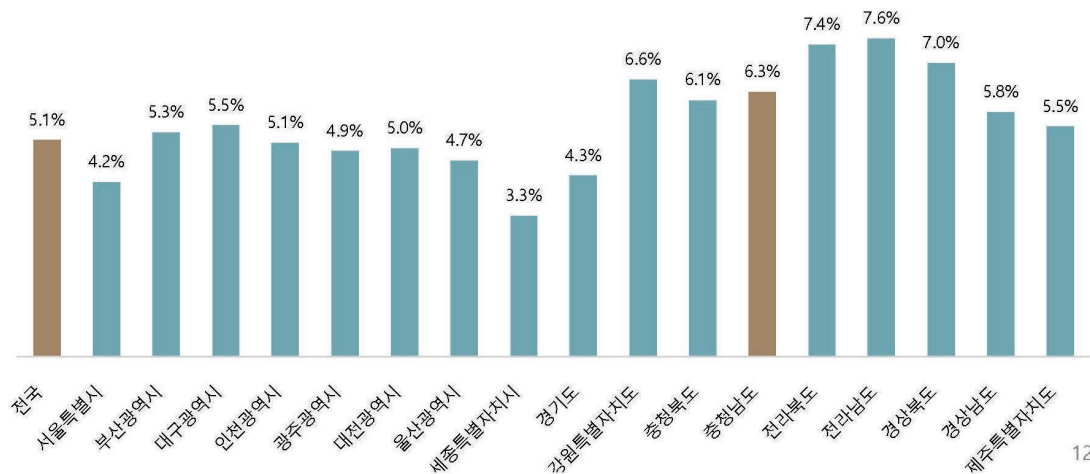
● 충남의 장애인 현황

- 2023년 12월 기준으로 충남의 장애인 인구는 134,004명임
 - 남성 76,878명, 여성 57,126명
- 충남도 인구 6.3%가 장애인임
 - 전국평균 5.1%보다 높은 편임(서울과 광역시보다 도지역에서 높음)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66.9%임
 - 유형별로는 지체 45.4%, 청각 17.1%, 지적 9.6%, 시각 9.0%의 순서임
 - 지역별로는 천안 20.4%, 아산 12.3%의 순서임

11

2 충남 장애인 현황

● 충남의 장애인 현황: 시도별 장애인구 비율(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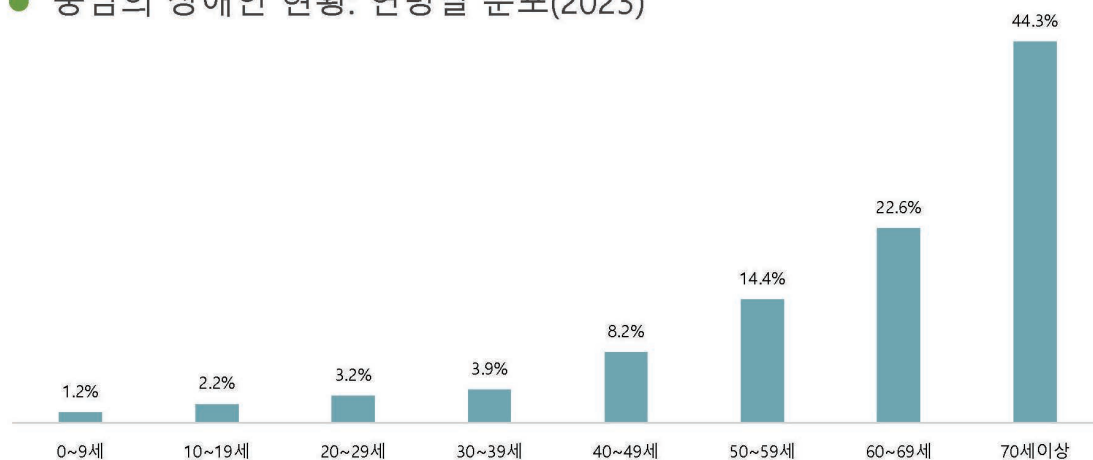


12



2 충남 장애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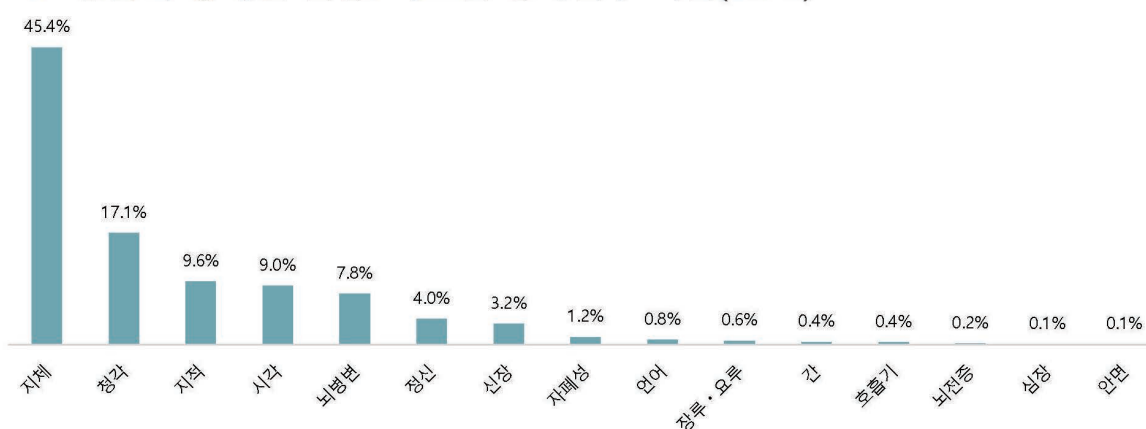
● 충남의 장애인 현황: 연령별 분포(2023)



13

2 충남 장애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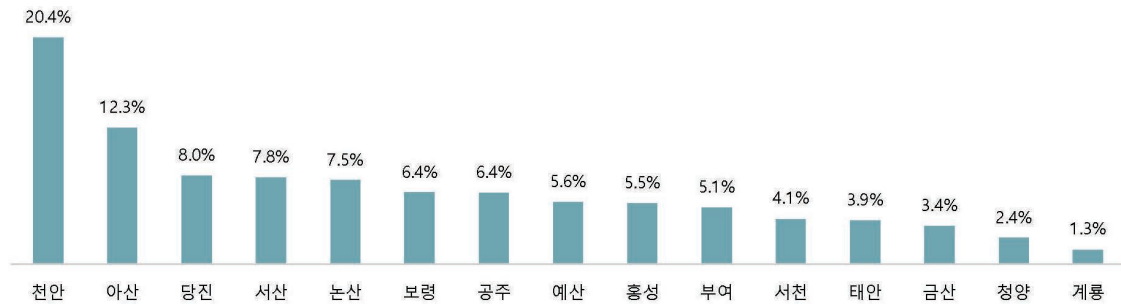
● 충남의 장애인 현황: 시도별 장애인구 비율(2023)



14

2 충남 장애인 현황

● 충남의 장애인 현황: 시군구 장애인구 비율(2023)



15

3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 관련 조례

-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1. 4. 30.)
 -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활동 지원
 -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 장애예술인의 작품에 관한 판로지원
 -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



3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 관련 조례

-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24. 7. 10.)
 - 제6조(창작물 우선구매) 도지사는 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장애인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6. 10. 20.)
 - 창작 공연 전시 활동 지원
 - 교육 및 홍보
 - 관련 활동 국내외 교류
 - 역량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 육성
-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18. 2. 20.)
 - 7조(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권 우선구매) 도지사는 장애인문화예술인의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

3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 충남 기초지자체 관련 조례

-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2019. 9. 16.)
- 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2021. 7. 1.)
- 태안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2023. 7. 5.)
-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2024. 3.15.)
- 천안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2024. 11. 11.)

18

3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 충남 기초지자체 관련 조례

-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2019. 9. 16.)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다음 각 호에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작, 공연, 전시 등 활동 2. 교육 및 홍보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

3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 2019년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시행함

- 장애인 시설로 찾아가는 교육
- 주강사 1명, 보조강사 2명
- 교육단체 수 3, 교육단체당 시설 수 2, 시설당 프로그램 1, 교육횟수 최소 10회, 교육생 10명이상
 - 문화예술체험학교도비스쿨(서산): 미술 15,000천 원
 - 한국미술협회서천지부(서천): 미술 15,642천 원
 - 한국예총충청남도연합회(천안): 음악(판소리), 14,280천 원

● 2030 문화비전 선도시책 A3-4 예술인(장애예술인) 일자리 창출(도정과제)

● 충남은 2024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진행

20



4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 2022년 지역 장애인 특성화 지원사업 시작(120백만 원, 전액 국비)(7월 1일 시작)
- 충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실태조사(50백만 원, 에스티리서치 수행)
 - 11.1.~ 11. 24. 설문조사(온라인, 장애예술인 266명), 12. 1. (비대면 FGI 4명)
 - 결과분석: 성, 연령, 권역(천안권, 아산당진권, 서해안권, 내륙권), 장애정도, 발생시기, 예술활동 등록여부를 독립변인으로 교차분석
 - 결과분석에서 장애유형 필요, 권역뿐 아니라 시지역 vs 군지역, 동부 vs 읍면부 분석, 예술장르별 분석 필요
 - 전국단위 분석과 비교하여 충남 특성 도출 필요

21

4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 2022년 지역 장애인 특성화 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개발 연구 (60백만 원, 가치솔루션)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일반
 - 충남 발달장애인 현황
 - 충남 장애인 예술교육 주요 프로그램 현황
 - 발달장애인 100명 설문조사(11.16.-11.30.)
 - 충남 특화 모델: 음악, 국악, 연극, 무용, 총괄(개발방향, 제언)
 - 프로그램 배경, 기대효과, 소개, 방향, 교육방법론, 교수자 역할, 프로그램 구조, 차시별 내용
 - 비교적 상세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개발함(충남 특화 여부는 살펴볼 필요 있음)

22

4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 2023년 지역 장애인 특성화 지원사업

• 계획

-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임차료 지원 (110백만 원)
- 창작 지원: 100백만 원, 개인 최대 5백 원, 단체 20백만 원
임차료 지원: 10백만 원, 1개소당 6개월, 월임차료 80%, 최대 3백만 원
-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지역별 100명 이내, 장애인 최소 50%), 160백만 원
천안문화재단: 발달장애 청소년, 음악, 10회차*3기수, 천안예술의전당, 나사렛대학교
공주문화관광재단: 발달장애 청소년, 무용, 12회차*3기수, 아트센터고마, 강북생활문화센터
- 예산: 340백만 원(국비 280백만 원, 도비 60백만 원: 기타직 보수, 운영비)의 창작지원

23

4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 2023년 지역 장애인 특성화 지원사업

• 실행

- 장애예술인
충남 장애예술인실태조사, 충남 배리어프리 문화시설 실태조사
창작 지원: 2명 신청 + 1개 단체 신청 -> 1명 지원 + 1개 단체 지원 (25백만 원)
임차료 지원: 1명 신청 (2.4백만 원)
-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지역별 100명 이내, 장애인 최소 50%)
천안문화재단: 발달장애 청소년 음악교육(86명)
공주문화관광재단: 발달장애 청소년 무용교육(26명)(정명학교 일대일 교육)
- 재단 배리어프리 실천 선포식, 도민 장애인식 개선 이벤트, 전문가회의 등

24



4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 2023년 지역 장애인 특성화 지원사업

• 창작지원에서 실태조사 변경

- 사전조사, 기본계획, 공고, 온라인사업설명회
접수결과: 창제작지원 15건 계획했으나 1건
접수결과: 임차료지원 3건 계획했으나 1건
➤ 유관사업(지자체, 문화재단, 중앙 유관기관)에 이미 참여하여 접수불가, 단체 대표자가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조건 맞추기 어려움
- 재공고
접수결과: 창제작(2명, 1단체 지원 → 1명, 1단체 지원)

25

4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 2023년 지역 장애인 특성화 지원사업

• 변경

- 장애예술지원사업 지원자 4명(충남장애예술인 266명 대비 1.5%)
창작 지원: 2명+1단체 신청 → 1명, 1단체 (25백만 원)
충남장애인 실태조사, 충남문화시설 배리어프리 실태조사로 변경
- 충남장애예술인실태조사 (50백만 원, 에스티이노베이션)
141명 대상 설문조사 (온라인조사, 충남장애예술인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FGI 7명(서면조사)
- 충남배리어프리 문화시설 실태조사 (50백만 원, 에스티이노베이션)
183개 문화기반시설조사 중 171개 방문조사
독립변인: 준공연도, 권역, 지역, 시설유형, 시설분류, 문화예술활동 공간 보유
FGI: 문화시설 이용 장애인 6명, 문화시설 관계자 및 전문가 6명
우수사례 사진소개: 충남도서관, 서천장항공공도서관, 아산시꿈샘어린이청소년도서관

26

4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 2023년 지역 장애인 특성화 지원사업
 - 자체평가 개요

구분	2022년 주요실적	2023년 주요실적	전년대비 주요성과
장애예술 기반구축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 계획(2022-2026)에 의거, 사업 본격 · 신규 공모선정(120백만원) 신규	· 2023년 충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시행계획 수립 신규 · 2년 연속 공모선정 ('22년 120백만원 → '23년 340백만원) · 사업 전담부서로의 업무이관 개선 (미래정책팀 → 예술인복지팀) · 장애인식개선 노력 신규 (도민 장애인식개선 이벤트 7,946명), (임직원 배리어프리 실천선포식 51명)	<장애예술 중요성 인식 제고> · 국정·도정 장애예술 지원정책 확산에 따른 중요성 확립 · 충남 장애인 예술활동지원 예산 증액 · 전문성 있는 사업부서 및 인력 배치로 실효적 사업운영 · '장애' 차별문화 척결 및 장애인식 변화, 도모 등

27

4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 2023년 지역 장애인 특성화 지원사업
 - 자체평가: 장애예술인 지원

구분	2022년 주요실적	2023년 주요실적	전년대비 주요성과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신규 (지원건수: 2건, 78명) · 장애예술인 임차료지원 신규 (지원건수: 1건, 400명) · 장애예술인 종합만족도(82.5점) · 장애예술지원정책 자문회의(2회) · 장애예술인 의견청취회(2회)	<장애예술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장애예술인 체감형 예술지원정책 제공 · 충남 장애예술인(개인) 최초 지원으로 만족도 증진 ·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환류, 사업고도화 실현

28



4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 2023년 지역 장애인 특성화 지원사업

- 자체평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구분	2022년 주요실적	2023년 주요실적	전년대비 주요성과
장애인 예술교육	· 충남-공주문화관광재단 컨소시엄기관 선정(1개소)	· 충남-천안-공주문화관광재단 컨소시엄기관 선정(2개소) ·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 신규 (지원건수: 2건, 112명) (참여만족도: 82.5점) · 장애예술교육 특성화 강사발굴 (18명) 신규 · 장애예술포럼(1회), 성과전(2회)	<장애인 단계별 지원시스템 구축> · 잠재적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노력 · 사회적 약자(장애인) 지원제도 강화 · 장애인 특화 예술교육 모델 적용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운영 · '23년 만족도점수 목표대비 1.5점 상승 목표 81.00점 → 실적 82.50점

29

4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 2023년 지역 장애인 특성화 지원사업

- 자체평가: 연구사업

구분	2022년 주요실적	2023년 주요실적	전년대비 주요성과
장애예술 기초연구	· 장애예술 기초연구 실시(2건)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 (장애인 예술교육모델개발 연구) * 공연분야(4) 특성화 커리큘럼	· 장애예술 기초연구 실시(2건)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개선 * '22년 216명 → '23년 141명 (배리어프리 문화시설 실태조사) * 171개소 전수조사 신규	<장애예술지원 당위성 강화> · 실증연구에 입각한 충남 장애인 예술 활동실태 결과도출 · 연구결과에 의거 지원사업 모델개발 · 충남 장애예술인 DB확보 등

30

4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 2024년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 예산: 340백만 원(국비 280백만 원, 도비 60백만 원)
- 연구: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2025~2029), 35백만 원
 - 실태조사에서 발전계획 연구로 심화 확대
-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임차료지원, 30백만 원
 - 창작지원 4명(단체), 임차료지원(5건)
 - 자격요건 완화: 장문원 동일기준 적용(활동경력 x)
 - 3명+ 1개 단체 지원

31

4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 2024년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 장애인: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165백만 원
 - 컨소시엄 → 운영기관 공개모집
 - 운영기관 3개 소*100명(최대 60백만 원)
 - 2022년 연구(충남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모델개발 연구) 적용
 - 운영기관 3개소: 공주문화관광재단, 서산문화재단, 천안문화재단

32



4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 2024년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 사회적 가치확산: 우리모두의 이야기, 포럼, 장애공감주간, 로드맵
 - 우리모두의 이야기(지원사업 통합발표회), 포럼: 장애예술 성과와 미래전망, 장애공감주간 캠페인
 - 예술가를 꿈꾸는 장애인을 위한 로드맵: 장애예술인이 되는 스토리 책
장애예술인 성장과정 구술채록, 교육과정, 입문프로세스 체계적 제시,
당사자, 부모, 형제, 교육자 등 구술
(장애예술인 1명, 구술자 4명, 채록자 1명, 출판사 1곳)

33

5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성과

● 성과: 충남에서만 볼 수 있는 것

- 일찍이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조례 제정했으며(2016),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시행(2023) 이전에 우선구매를 조례(2018)에 명시함
- 장애예술인 관련 조례도 제정(2021)하여,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관련 조례가 있는 광역지자체임
- 6차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포함된 장애인 문화예술 이용권 (준비)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행: 충남문화관광재단(2024)
 - 당진, 서산, 천안, 아산의 19세 이상 장애인 250명 *자신/이* 원하는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
 - 1인당 50만 원
 - 교육과정 50개 이상

34

5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성과

- 성과: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정책사업 수행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실태조사(2022)는 장문원의 실태조사 틀에 따라 진행: 전국단위와 비교했다면 충남의 여건과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임
 -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개발 연구(2022)는 장문원의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2021)과 연계성을 지님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좌이용권 준비사업(2024)는 장문원의 관련 연구(2024)를 지역에 맞게 실현하는 사업임

35

5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성과

- 성과: 기초지자체 협력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충남문화관광재단-공주문화관광재단(2022~)-천안문화재단(2023~)-서산문화재단(2024)
- 성과: 전문가 협력
 -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중장기 발전방안 연구(2024),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2022)에서는 충남 이외 지역을 포함하여 전문가들과 소통하고자 함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서는 2022년 연구진이 참여하도록 함

36



6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과제

● 향후과제

- 예산의 지속성 필요: 2025년은 관련 예산 불투명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2022년부터 진행하여 지속수행해야 유의미한 결과 도출할 수 있음
 - 장문원 지역 장애인 특성화 지원사업 예산: 2022년 국고 120백만 원, 2023년과 2024년 예산 국고 280백만 원, 도비 60백만 원
- 지역 장애인 특성화 지원사업 종료 이후 부산과 광주는 지방비 예산 책정한 적 있음 (300백만 원, 350백 만원)

37

6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과제

- 충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예산
 - ✓ 충남도의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위에서 살펴본 지역장애인 특성화 예산(60백만 원) 외에도 세 가지 사업이 있음
 -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18백만 원), 장애인합창대회(20백만 원), 발달장애인 미술작품 전시회 지원(17백만 원)
 - ✓ 네 가지 사업 예산은 115백만 원임
 - ✓ 이밖에 충남도는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과 독서문화 진흥에 297백만 원을 지원함

38

6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과제

- 충남도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관련 예산에 관심을 가져야 함
 - 진행 사업의 지속
 - 2025년은 전년 대비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장애인이 선택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이용권)이 지속되기 어려움
 - ※ 지역장애인 특성화 지원의 장문원 지원(280백만원)+문화이용권(200백만원)
 - 전년대비 480백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어 장애인 500명 이상이 문화예술교육을 받기 어려움
 - 2024년 새롭게 시작하여 주목할 만한 장애예술인 구술채록 사업 역시 지속되기 어려움
 - 2년차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1년차 문화예술교육 이용권과 구술채록 사업은 몇 년 더 진행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을 적극 검토해야 함

39

6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과제

-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관련 예산에 관심을 가져야 함
 - 장애예술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각각 조례를 갖춘 것에 걸맞게 예산 조성
 - 중앙정부보다 5년 전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의 제도화(조례)한 것처럼 관심 지속
- 법률로 제도화된 우선구매(정부기관, 공공기관), 정기적 공연전시(국공립 문화시설)을 선도적으로 실시
 - 전국 단위에서 모범 사례로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음(포용예술의 충남,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도시 충남 지향)
 - 충남은 문화예술교육 이용권(준비)사업을 시도한 지역, 장애인문화예술을 선도해 볼 수 있음

40



6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과제

- 장애인 문화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정책과 연계하는 도 단위 광역지자체가 될 수 있음
 - 앞서 본 것처럼 부산과 광주 등은 3년차 사업 이후에도 별도 예산 책정
 - 현재 장애인문화예술 정책의 이슈 가운데 하나는 접근성인데, 충남에서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접근성 활동(매니저 활동)에 적극 참여해 볼 수 있음
- 중부권 장애인 표준공연장 및 전시장 설치를 검토해볼 수 있음
 - 장애인 표준공연장(2023), 장애인 표준전시장(2024)은 서울에서 개관되었는데, 일부 지자체에 서는 이 같은 장애인 전용 문화공간 조성 등을 검토한 바 있음
 - 장애인 문화예술실태조사 등에서 주된 요구사항이 공간이란 점, 그리고 표준공연장/전시장이 최근 이슈인 접근성(물리적, 예술인 접근성, 프로그램 접근성)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검토 가능

41

6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과제

-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체육정책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실현 검토
- 포용예술을 지향한다면 복지시설 중심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서 생활 속의 (장애인)문화예술정책 실현해 볼 수 있음
- 충남문화관광재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연구사업은 전국 비교, 도시규모별 비교가 필수임
 - 설문조사에서 질적 연구로(2024년 로드맵 사업 지속 및 확대)
 - 기존 연구 등에서 우수사례 분석 및 홍보
 - 아직 참여경험 없는 지역협력 유도
 - 현재 재단에서 수행 중인 사업들에서 장애(예술)인 참여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예술인파견지원, 레지던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등)

42

MEMO



MEMO

2024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포럼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지난 3년간의 평가와 향후 10년 기획



제 3세션

주제 토론

충남 장애예술 지원정책
현재와 미래 (성과와 과제)

좌장 방귀희 |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토론 전소영 | (협성대학교 에이블아트학과 교수)

최선영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온라인 기획위원)

홍혜전 | (한국장애학회 문화예술분과위원회 위원)

김태우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광선 |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남도발달지원센터장)





방귀희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대표

주요 경력

現 한국콘텐츠진흥원 비상근 이사
現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 위원
現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회장
現 송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과 겸임교수
저서/〈장애인예술론〉, 〈장애인문학론〉 등
논문/ “장애예술과 장애인예술 용어 속 함의 탐색”
(『장애인복지연구』, 제14권1호, 2023)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방안 연구: 영국, 독일,
일본, 중국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 비교연구”, 한국장애학회(2022)



MEMO



전 소 영

협성대학교 에이블아트학과 교수

주요 경력

前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연구교수

現 협성대학교 에이블아트·스포츠 학과 출강

現 서초 한우리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지휘자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의 미래와 전략

전소영 협성대학교 에이블아트학과 교수

장애인 문화예술은 1998년 제1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어려움 속에서도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장애예술인 문화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예술인 지원법)과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등의 법률 제정으로 장애 예술환경이 변화되고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충남 문화관광재단 주최로 ‘장애예술’을 주제로 한 포럼 또한 장애예술 분야의 발전과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많은 장애 예술인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개관 등 여러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제한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어렵게 이어나가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충남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논의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행 예술지원에서의 발전적 방향 모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특별한 날에만 관심을 갖고 제공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문화·예술을 배우고 향유하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1. 생활밀착형 지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특별한 날에만 관심을 갖고 제공되는 것이 아닌 우리 모충남 문화관광재단은 장애인 문화예술 이용권 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행한 기관으로서, 장애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적 역량 강화 및 생활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 당진, 서산, 천안, 아산지역에서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더 확대된 지역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예산 확보와 지원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가 문화·예술을 배우고 향유하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2. 특성화 지원

장애예술인에게 창작지원, 임차료지원,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예술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충청남도 인구의 6.3%가 장애인이고, 그 중 지체 장애와 (45.4%) 청각 장애 (17.1%)비율이 높으며, 지적 장애와 시각장애는 비슷한 비율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천안문화재단에서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음악교육,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 발달장애청소년에게 무용교육을, 서산문화재단에서 연극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 지원이 조금 더 다양한 장애 유형으로 확장하고 넓히면서 장애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장애 유형에 따라

적합한 전문가를 초빙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고른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것입니다.

3. 거점 공간의 확대와 멘토링 / 컨설팅 실행

충청남도에는 8개의 시와 8개의 군이 있는데 현재는 천안, 서산, 공주시 세 곳에서 거점기관으로서 예술 사업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 접근성이 낮습니다. 장애인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거점 공간을 확대하여 창작 및 연습공간 확보를 하고 여러 지역의 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문화예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거점기관이 확대가 되면 예술참여 기회를 제공받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장애예술인 육성에도 귀결될 뿐만 아니라, 창작지원 사업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른 예술가나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미래를 위한 직업 연계 지원

특성화 지원 사업과 교육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에 특기가 있는 장애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학령기 이후의 진로 및 삶에 연계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그리고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나사렛대학교를 포함하여 많은 대학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입시 전형이 있고, 예술적 재능이 있는 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지만, 졸업 후 장애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취업 형태는 정규직 6.1%, 문화예술활동 수입은 월 18만원으로 고용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장애 예술인 고용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예술분야에서 음악과 미술 분야에서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음악은 미술 작가들처럼 개인적으로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팀을 만드는 과정부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장애예술인을 고용할 때, 특히 음악 분야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한 장애예술인을 관리할 수 있고 연습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단체를 기업에서 선호하고 있어 장애예술인의 취업을 위한 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음악 분야의 예술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취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예술인 취업 인력풀 혹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합니다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과제 및 방법 제시

1. 법률로 제도화된 우선구매 및 작품 전시의 일상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예술인들의 자립적 창작활동의 지속 및 직업예술가로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창작물 구매 총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구매해야 하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예술가들의 열악한 문화예술활동 기반에 도움이 되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구매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하고, 아트 상품을 정부 기관 외의 민간 단체 혹은 개인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여 장애예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홍보하며 장애예술 확산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2. 공연장/ 전시장의 배리어프리 (Barrier-Free)

장애인 표준공연장 및 전시장을 설치하여 장애인 전용 문화공간 조성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문화공간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공연장에서 장애좌석은 앞쪽에 위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 좌석은 대부분 관객석 뒤쪽에 위치하여 무대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무대 뒤의 상황은 짐작해보셨는지요? 대기실에서 무대까지 이동하는데 수많은 계단을 오르고 내려야 하거나 좁은 통로를 지나야만 무대를 갈 수 있는 전용홀들이 있습니다. 관객의 입장에서가 아닌 공연예술가의 입장에서 장애예술인은 진입장벽이 높아 공연장/전시장의 무대 뒤 이동 동선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게 해야합니다.

3. 비장애인과 협업, 장애인 비율에 대한 고찰

여러 문화재단 및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예술 지원사업에서 빠지지 않는것이 장애예술인에 대한 비율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필자는 재단 지원사업 예산 심의에도 참여해보았고 지원금을 받은 단체를 방문하여 모니터링 하는 일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지원사업 공고에 장애인 비율 30%, 혹은 50%이상이라고 쓰여진 세부조항을 많이 보았고, 현장에서도 비장애와 장애예술가가 함께 활동에 임하는 모습을 모니터링해왔습니다.

지원금 사업에 있어서 장애인 비율에 대한 부분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래를 보고 장애예술인의 역량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장애예술인의 비율을 단순히 수치로 보는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의미와 역할로 협업을 하는지 단체의 가치관에 대해 비중을 두고 지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협성대학교 에이블아트 • 스포츠학과에서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국내최초 발달장애인 직업연주자들로 구성된 서초한우리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서,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토대로 이번 충남 문화관광재단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충남 장애예술인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제 의견을 제시해보았습니다. 이번 포럼이 거점 기관의 확대와 더불어, 지역별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장애예술인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와 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최 선 영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아름온라인 기획위원

주요 경력

○ 문화예술기획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 모두모두 미술관 '많많 놀이터'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시즌프로젝트 '다시 마주하기 : 평평한 날들에' 등

○ 교육/워크숍

세종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과정 '나는 뭐가 재미있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장애예술교육 매개자 과정 '빈칸투어' 등

○ 컨설팅, 자문, 멘토링, 모니터링

경기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컨설턴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글로벌 문화예술교육 탐방 프로젝트 'A-round' 멘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N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협력기획단 등

○ 연구

경기문화재단 <경기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사·연구 : 전체이면서 부분인 것들의 연결> 공동연구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좁은 시대에서 넓게 펼쳐는 질문> 책임연구원 등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포럼

최선영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온라인 기획위원

1. 중앙 정책의 방향성과 충남 정책의 상황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장애예술활동 지원 강화(장애예술인 지원정책 제도화, 장애예술인/단체 창작물 유통지원, 장애예술인/장애예술계 매개자 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

여기에서는 특히 접근성,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련 ‘권리’ 중심의 정책 방향이 눈이 띈다. 이 내용은 5차 종합계획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던 사항이며 현재까지 주요 과제로 설정될 정도로 현실화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충남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위 내용 중 특히 장애예술인 지원제도에 집중하고 있다. 그 외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의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역 단위 문화재단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운영할 기회를 3년간 지원하고 있어 지역 장애예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재단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참여해 장애예술 사회적 가치 확산 프로젝트 맥락에서 개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충남 장애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과 임차료 지원사업, 예술가를 꿈꾸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예술인 로드맵 발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연구를 통해 나온 프로그램은 올해까지 공주, 서산, 천안에서 지역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운영되었다.

그런데 위의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장애예술인 지원 외에 매개자 양성 및 교육 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이 혼자 창작과 발표를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매개자 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예술인이나 기획자의 숫자가 현저히 적은 충남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부터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볼 수 있다.

충북문화재단의 사례를 보면 장문원의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이전 사업명인)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참여했다. 충북문화재단은 ‘장애인 예술 매개자 양성 과정’을 3년간 집중적으로 운영했다.

지역 내 장애인 예술 활동에서 매개·기획 역할을 할 주체를 발굴하고, 매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나누기 위해 강의, 워크숍, 멘토링, 실천 기반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 과정을 운영했다. 당시 매개자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현재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는 찾기 어려우나 지역 내 활동을 매개자 양성부터 시작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2.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현황 파악을 통한 실질적 정책 필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충남의 장애인 인구는 134,004명이며 이중 0-39세 까지의 비율은 10.5%로 약 14,000명이며 이들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활동 참여가 더욱 필요한 아동, 청소년, 청년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충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남 장애예술인은 266명이며 이중 예술인활동증명을 마친 사람은 81명이다. 정책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및 향유기회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예술인을 포함한 더 많은 숫자의 장애인 대상의 문화예술 정책이 더욱 폭넓게 필요함을 되짚어봐야 한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 이전에 문화예술 활동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다. 그 목적과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원칙)

-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 ②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개정 2023. 8. 8.>

따라서 우선적으로 충남에서 장애인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 접근성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충남에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논의하는 기회도 많지 않다.

2022년 「충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배경 및 상황을 조사하는 항목에 예술 교육 참여 정도, 필요성을 묻는 문항도 없다. 단지 이미 예술인이 된 장애인의 고용이나 소득 현황, 공간의 필요성, 단체 소속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만 이루어졌다.

한 사람이 예술인이 될 때까지의 일반적인 과정에 대한 다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의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포럼이 소수의 재능 있는 장애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을 어떻게 접근성 차원에서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은 2022년에 진행한 「충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이어, 2023년에는 「충남 배리어프리 문화시설 실태조사」, 「충남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장애인이 일상에서 예술을 어떻게 접하는지를 파악해야 지역 내 장애예술인의 활동 방향성을 더욱 현실적으로 그릴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 관련 실태조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역시 공공지원의 역할이 계속 필요하다. 지역의 경우 기본적인 문화향유 및 교육 참여 기회가 마련되기까지는 ‘권리’



중심의 지원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지원이 1~3년 단위의 단기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현장의 변화를 살피는 시도가 시급하다. 그 과정은 결국 다양한 ‘사람’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기에 지역 내 강사, 기획자 등 매개자가 늘어날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당연히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금 확대를 넘어 보다 넓은 관점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3.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을 위한 근거 필요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는 장문원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문화예술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되었는데, 전국 17개 광역 시도 재단 중 충남 문화관광재단이 유일하게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이용권 사업도 의미가 있으나 더욱 전문적인 교육이 지역사회에서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자신이 자주 가는 학교, 기관, 커뮤니티 등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더욱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거점형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충남문화관광재단이 2022년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연구」를 바탕으로 공주, 서산, 천안에서 진행한 프로그램도 이러한 환경 마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올해로 해당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남 지역 차원에서의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위 사업에서 천안 지역의 프로그램 <미소 창작소> 연구자로 참여한 본인은 참여 아동 및 청소년과 부모님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기 사업으로 시행, 마무리되는 지원사업의 한계를 확인하면서 지역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현실적 대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한계 상황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 정책 구조나 행정적 상황이 지역 혹은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복잡하게 현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이라도 현장의 요청을 가시화하는 노력인데 그런 측면에서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의 반응, 관계자의 공감대를 의미화, 성과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 예술 활동, 예술교육 등에 있어서는 특히 그것이 특수교육, 복지, 그리고 의학 분야의 관점이나 의미와 왜 어떻게 다른지를 언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수교육을 문화예술로 더 쉽게 실현할 수 있다, 복지적 관점에서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장애 특성 중 일부 요소를 개선하거나 줄이기 위해 문화예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관점이 아닌, 장애인이라는 결국 ‘사람’에게 문화예술 활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애인이 이미 복지 분야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예술 활동에까지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계속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그러한 상황 자체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제도와 현장의 가장 큰 숙제라는 생각도 든다. 기존 지배적인 관점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전문화된 해석, 공론화될 수 있는 맥락을 찾아야 제도든 활동이든 '지속성'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감받을 수 있다.

4. 프로그램 확대를 넘어 경험의 일상화를

필자는 <미소 창작소> 성과공유회에서 몇몇 참여자의 가족들로부터 이 프로그램의 의미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중 공통된 의견은 지역 내에서 장애인이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미소 창작소>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상황에서 인간은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문화예술 영역은 사람마다의 개별적 특성, 욕구, 속도를 다양성의 맥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미소 창작소>는 참여자가 보다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것이다.

예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나 예술강사가 참여자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 자체에 집중하였기에 그것이 가능했다. 새로운 자극과 표현 재료, 놀이 방법 등이 프로그램 전반에 등장했는데 그것은 여러 선택 중 하나로 전제되었고 그 선택의 기준으로 참여자의 욕구나 관심사나 가장 크게 고려되었다.

그래서 누군가 조금 쉬고 싶어하면 공간의 한 편에 가서 앉아 있거나 자신에게 익숙한 행위를 해볼 수 있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활동에 더 관심이 있는 경우 잠시 그 재료를 만져볼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미소 창작소>가 참여자의 개별성에 따라 반응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영의 방향성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위한 기획 요소는 아니었다. 무엇보다 참여자가 자기 자신으로 무언가를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공공 영역의 예술교육 안에서 확보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계획이 너무 촘촘하거나 확정적이지 않아야 했다. 오히려 세부 내용은 참여자에 따라서 끊임없이 수정, 변경될 수 있다는 원칙이 중요했고 예술강사들 역시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현장 운영을 했다.

그래서 <미소 창작소>는 주말에 잠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었으나 참여자에게 자기표현을 하기 위해 '가고 싶은 곳'으로 작동했다.

그런데 특히 장애인의 삶에서 '갈 곳', '가고 싶은 곳'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예전보다는 넓어졌으나 여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누군가의 시선을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며 '갈 수 있는 곳',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처럼 기획된 시간 속에서 마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혹은 그렇게라도 마련될 필요가 있기도 하다.

그런 시간과 장소가 지역 사회에서 다수에게 인식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단기 프로그램의 운영을 넘어 장애인의 표현 장소로서의 ‘갈 곳’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그 장소가 정책적 지원에 좌지우지되는 한계를 자주 마주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지속성을 중심에 둔 제도적 개입이 중요하다.

〈미소 창작소〉가 석달 동안 참여자에게 ‘갈 곳’이 되었다면 3년, 5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열린 문화공간, 표현의 장소가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미소 창작소〉와 같은 프로그램의 확대를 넘어 어떻게 ‘갈 곳’, 일상적 경험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복지나 특수교육 영역과의 연계 외에 독립된 활동으로 시도될 필요도 있다.

몇몇 프로그램의 긍정적 요소를 떠올리며 기약 없는 만남만 기다리는 경험은 이미 충분히 했다. 현장의 요청이 분명하고 공통된 목소리가 존재한다면 그것에 귀 기울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현장의 언어를 듣고 축적하는 과정으로부터 충남의 구체적 사례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홍혜전

한국장애인학회
문화예술분과위원회 위원

주요 경력

세종대 무용학 박사, 대구대 장애학 박사 과정 중
現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
現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센터장
現 한국장애인학회 문화예술분과위원회 위원
장애예술인 강사 양성 교육과정 체계 연구(2024)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2022-2024)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2021)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

홍혜전 한국장애학회 문화예술분과위원회 위원

조현성 연구원의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분석은 명확하고 체계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지역적 특성을 균형 있게 조명함으로써 충남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제문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단순히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유될 가치가 있는 주제로, 정책적 영감과 실천적 방안을 동시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1. (구체적 데이터 활용)** 발제문은 충남의 장애인 인구 통계와 정책적 맥락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으며, 장애유형, 연령대, 지역 분포를 세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2. (정책 성과의 입증)** 조례 제정 및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와 같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충남의 선도적 역할을 부각시킨 점이 돋보입니다.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의 유일한 시도는 정책적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 3. (향후 과제의 현실적 제언)** 단순한 비판이 아닌 예산 지속성, 물리적 접근성 확장, 중부권 표준공연장 설치 검토 등의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과제를 제언한 점에서 발제문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발제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구성해보았습니다.

질문 1: (예산 지속성의 과제) 예산의 지속성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연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발제문에서도 예산의 불투명성과 관련된 우려가 언급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 방안은 충남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의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질문 2: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강화) 접근성 활동 매니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발제문에서도 접근성은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안 논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활동이 장애인의 실질적 문화예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참고자료〉

아래 내용은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2025-2029) 연구]에서 도출된 일부 연구결과입니다.

1. 장애인(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정책기반 조성

정책 목표 설정

-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비전, 목표, 전략 수립 필요
- 장애인 예술 향유권 확대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 전문인력 양성으로 확장하는 순차적 접근 필요

기초 데이터 수집

- 지역별 장애유형, 장애예술인의 수, 단체 수, 활동 현황, 프로그램 수요 등 실태조사 필요
-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별 현황 분석을 통해 세부 실행 방안 수립 마련
- 간담회 및 공청회를 활용한 실질적인 의견 수렴 필요

장애예술 개념화와 연구 기반 마련

- 장애미학 또는 장애예술비평 연구를 통해 충남도의 장애예술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정책 및 지원사업에 반영
- 충남형 장애예술의 정의는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증진 방안

접근성 확대

정보 접근성

- 공연, 전시, 교육 등 정보 제공 방식을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수어 영상, 점자 콘텐츠, 쉬운 글로 작성된 홍보물을 통해 정보 전달을 다양화해야 함
- 공모사업 홍보 시 장애인 커뮤니티와의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소통 채널 제공 필요

물리적 접근성

- 공공문화시설과 교육공간의 접근성을 높이는 리모델링 필요
- 장애예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물리적 접근성 기준 충족을 위한 개선 필요
- 장애인 문화예술공간에 접근성 매니저를 배치하여 장애인의 이용을 돕고, 필요한 물리적 조건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함

소통 및 환경적 접근성

- 장애 유형별 학습 특성과 창작 요구를 반영한 환경 조성
- 편안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개별 학습 속도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 및 환경 제공



3.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확대 방안

1) 창작지원 강화

지원제도의 다각화

- 경쟁형 선발에서 벗어나 장애유형, 창작과정, 예술장르별로 세분화된, 창작활동의 개별성과 과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공모 방식의 다양화(구술 면접, 수어 영상 등)와 불합리한 등록제도의 개선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함

거점공간 마련

- 장애예술인이 장기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거점공간 필요
- 창작공간, 생활공간, 경제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상주 예술단체 유치를 통한 장애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 보장

2) 자립기반 조성

권리중심 일자리 창출

- 장애예술인을 위한 권리중심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예술활동과 고용 연계
- 장애예술인을 공공문화시설에 상주시켜 창작활동 및 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작공간에서 주민과 예술을 공유하고 교육할 수 있는 예술강사로서 활동

작품 유통 플랫폼 구축

- 장애예술 창작물의 유통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여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기회 제공 필요
- 장애예술품 우선구매제도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여 작품 소비를 장려하고, 세제 혜택과 같은 지원책 도입 필요

3) 전문인력 양성

장애예술 교육자 양성

- 장애예술인을 지도하고 창작을 돕는 교육자, 매개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함. 중장기적으로 장애예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 할 것
- 예술적 전문성과 장애감수성을 겸비한 교육자가 장애예술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창작을 지원하도록 장기적이고 유연한 지원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 인력 개발 필요



김 태 우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주요 경력

충남대학교 행정학 박사
現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現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단장
前 충청남도 논산시 부시장
前 충청남도 인사과 과장



장애인의 정서적 즐거움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김태우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1. 문화예술활동 필요성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이 중시되던 과거와 비교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예술은 사회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적인 요구로서 인간이 추구하는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조화롭게 이어주고 더 나은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이 된다.

이를 통해 인간은 전인적 차원에서의 성숙과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도 문화예술 차원의 요구와 향유는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2023년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 수는 264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이며, 충청남도는 13만여명이 장애인이 있고, 행복한 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활동이 필요하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도내 장애인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으로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웹툰 아카데미, 장애인문화예술작품 공모전 등 3가지의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사자도 모르는 잠재적 예술 감각과 재능을 발견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발달장애인은 언어적 표현능력은 다소 미숙하나 그림이나 음악으로 세상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하려고 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은 사회복지 정책으로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소극적 관점에서 다루면서 필요성이나 가치,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 예술인을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 전문공연전시 시설,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유통 및 보급 인프라는 열악하며 장애인예술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이 실정이다.

장애예술은 대부분이 복지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직은 전문 예술인의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대부분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사정은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2. 복지관 문화예술분야 사업 현황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충청남도 최초로 2005년 1월 음악에 대한 열정과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장애인들로 창단하였고. 현재 목관, 금관, 타악기 등 총 29명으로 8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음악에 관심이 있거나 재능이 있는 장애인을 발굴하고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여 음악적 기량을 키워나가는 장애인 음악 예술단체다.

올해 19번째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고, 지역사회 다양한 축제 및 행사에 초청을 받아 2022년 28회, 2023년 26회, 2024년 16회(10월 기준) 연주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을 줄이고자 최근에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병행하여 소그룹 타악기 연주팀으로 구성해서 학교 및 사업체로 교육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가. 단원구성 현황 (금관, 목관, 타악)

장애유형	지적	지체	신장	자폐성	뇌전증	지도강사
인원(29명)	12명	5명	1명	1명	1명	9명

나. 주요활동 사진



○ 청년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청년장애인 웹툰 아카데미는 장애를 가진 청년에게 웹툰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청년 장애인이 웹툰 창작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웹툰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창작 역량을 강화하여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로 장애를 가진 창작자가 만든 작품이 비장애인에게 소개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 전달하는 역할을 함

가. 주요성과

- 광주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캐릭터 공모전 우수작품상 수상
- 전국웹툰공모전 은상 수상
- 사회복지사 인식개선 캠페인 인권 배너 웹툰제작 협력
- 웹툰 아카데미 우수작품 캐릭터 프로모션 작품 선정

다. 교육 및 작품사진



나. 3개년 교육인원

구분	2024년 10월	2023년	2022년
인원	38명	55명	46명





○ 장애인문화예술작품 공모전

문화예술작품 공모전은 2019년도 시작으로 장애인예술인의 예술적 성장 및 활동 확장을 도모하고 장애인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공모전은 장애인 예술가에게 창작의 장을 열어주며 예술적 역량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장애인의 예술적 표현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물을 사회와 공유하여 자신감을 얻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며,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장애인도 예술적 창의력과 능력을 가진 창작자임을 보여주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
- 창작활동으로 예술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고, 예술 분야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그들의 창작물이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

가. 최근 3개년 작품현황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수 량	146점	71점	69점

나. 주요 활동사진



3. 문화예술의 지원 정책

가. 문화예술 교육기회 증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마련으로 교육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교육비 지원, 강사 파견, 전문 예술가와의 협업프로그램 등을 통해 더 쉽게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충남문화관광재단 및 민간기업, 예술단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기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나. 취업 및 고용연계 활성화

장애 정도가 중증이고 연령이 낮은 장애예술인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여 시간제 근무 혹은 계약직으로 비예술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득이 정기적이지 않은 경우 부모, 배우자의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복지관, 사회적기업, 또는 사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의 형태로 많은 장애예술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며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 개발과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편견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예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장애를 결핍이나 분리, 폐쇄가 아닌 또 다른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수혜적 관계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한 파트너십을 지향해야 한다.

다. 예술활동 편의 접근성 개선

개인 활동 위주로 하는 문학, 작곡 등과 관련 예술인들은 자가에서 작업을 하지만, 연극, 무용, 오케스트라 등 다수가 대면으로 연습을 해야 하는 분야의 경우 활동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선택할 때도 제약이 많이 있고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 연습, 창작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MEMO



김 광 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남도발달지원센터장

주요 경력

前 광주은혜학교 음악교사
前 광주은혜학교 교감
前 한국장애인개발원 충 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前 등대의집 인권지킴이단장
前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위원
前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위원
前 직장내장애인식개선전문강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現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現 반딧불단기보호센터 운영위원장
現 충남장애인직업능력개발위원회 위원(충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現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 시민참여혁신단원
現 충남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위원
現 충청남도 장애인위원회 위원
現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現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 위원
現 한국곰두리봉사회 장애인활동지원 운영위원
現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 운영위원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지난 3년의 평가와 과제

김광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남도발달지원센터장

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정책기반(창작, 역량강화, 발표·향유기회 확대, 자립기반)과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활동지원 관련 조례」 내용은 문화 예술 분야로 진입을 원하는 성숙해 진 예비 예술인을 위한 지원에 한정하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문화 예술 등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과 취미를 발전시켜 전문적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상당한 오랜 기간의 교육과 훈련 등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 장애 예술 교육 프로그램 및 인프라 조성

발표 I 중 II장. 국외 장애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현황 일부

「각 나라별 장애예술단체 예시를 제시한 내용 중 미국의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Creative Gross는 캘리포니아 오كل랜드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산업용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140명의 장애인들이 시각예술로의 접근을 제공하고 있음.

회화(페인팅), 소묘(드로잉, 데생), 디지털 미디어, 도예, 직조, 조판, 패션, 목공예 등을 제공하고 있고 21세 이상의 성인들을 위해 봉사하며 토요일에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음. 예술가들은 무료로 참석할 수 있고 그들이 공동체에서 행복하다면 평생이라도 머무는 것이 가능함.

직원들은 그들에게 다양한 예술의 선택권을 소개해 주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지는 않으며 그들이 그들 자신의 예술적 길을 스스로 찾도록 지원하고 있음.」

미국의 Creative Gross의 열린 공간을 설립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지만 미래의 과제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주민센터, 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에 상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장애인 어느 누구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참여 가능할 수 있고, 참여하는 분들 중 참여를 넘어 전문가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 주고 교육, 훈련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통하여 장애인들 중 문화, 예술인으로 성장 가능한 분들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환경적 변화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 구현이 필요함을 제안합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의 열린 공간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의 선택권을 소개해 줄 수 있고, 경험하게 해주며 관심도가 높은 분들에게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 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고 그들이 그들 자신의 예술적 길을 스스로 찾도록 끊임없이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러한 접근성 강화 - 창작지원의 강화가 곧 자신이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점차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예술 공연단, 작품전시회, 창작 발표회, 장애인식개선 강사 등의 참여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자립기반이 조성이 되어 지역사회에 사회적 가치실현에 참여하는 당당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발표 II 중 6.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과제

장애인 문화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정책과 연계하는 도단위 광역지자체가 될 수 있음

-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이슈 가운데 하나는 접근성인데, 충남에서 물리적 접근성 뿐 아니라 접근성 활동(매니저활동)에 적극 참여해 볼 수 있음

중부권 장애인 표준 공연장 및 전시장 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장애인표준공연장(2023), 장애인표준전시장(2024)은 서울에서 개관 되었는데, 일부지자체에서는 이같은 장애인전용문화공간조성 등을 검토한 바 있음
- 장애인 문화예술실태조사등에서 주된 요구사항이 공간이란 점, 그리고 표준공연장/전시장이 최근 이슈인 접근성 (물리적, 예술인 접근성, 프로그램 접근성)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검토 가능
- 장애인문화예술실태조사등에서주된요구사항이공간이란점, 그리고표준공연장/전시장이 최근 이슈인 접근성(물리적, 예술인접근성, 프로그램 접근성)을포괄한다는점에서 검토가능

조현성 연구원님께서 제시하신 문화예술 정책의 과제에서 위와 같이 제시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장애인이 예술인으로 성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각 유관기관(장애인 지원 유관기관 이외에도 주민센터 문화센터, 지역사회 문화센터, 사회·종합복지관, 각 지역 공연 예술단체 등)의 열린 문화, 예술 프로그램 제공 공간의 지역사회 확대를 통하여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룹(문화예술 이용권의 확대 지원 등)과 기존에 문화, 예술 프로그램 참여자 중 재능과 욕구가 충족된 분들에게는 특별 프로그램 지원으로 문화, 예술인으로 전문적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예술 교육 지원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산 지원이 한시적인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키워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문화 예술 선택권을 통하여 예술인으로서의 도전도 확대되어 다양한 분야의 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자연스러운 장애인식 개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MEMO

2024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포럼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지난 3년간의 평가와 향후 10년 기획



제 4세션

종합토론



MEMO



MEMO

2024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포럼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서흥식
편집인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팀 주임 조혜빈
집필인 박기영, 김형희, 조현성, 방귀희, 전소영, 최선영, 홍혜전, 김태우, 김광선
발행처 충남문화관광재단

※ 본 자료집의 내용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본 행사는 충청남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